

12장 벤야민의 소설론과 기억에 대한 단상들 1

◆1교시: 벤야민이 본 소설

▲ 소설, 이야기의 타락

오늘은 소설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엔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엔 소설입니다. 벤야민의 논리에 따르면 소설이라는 형식은 이야기의 타락현상입니다. 기호로서의 언어가 아담의 언어의 타락인 것처럼, 언어철학에서 소설은 이야기가 타락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은 근대의 한 현상입니다. 현대 소설의 기원을 보면 돈 키호테에서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키호테의 내용에 있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할아버지가 소설을 많이 읽고 문제가 생긴 것 때문입니다. 19세기 부르조아 소설에서도 여자들에게 소설을 읽히면 바람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담 보봐리도 풍속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실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그녀의 능력인데, 플로베르의 정의에 의하면, 그녀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가 신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명한 사실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해도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고... 그녀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즉, 자신의 몸이 떨렸던 것으로 소설 속의 멋진 귀족과의 로맨스나 파티 등이었습니다. 현실이나 아니냐는 내 몸이 떨리느냐 아니냐 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특성은 그녀가 몸이 떨리고 무엇을 자기의 환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하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자에 끌리면 한 번도 그 남자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플로베르는 그녀의 능력을 근대인들이 다같이 잃어버린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보봐리 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으며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소설에서 비롯됩니다. 적과 흑에서 정숙한 부인의 견본인 레날 부인을 보면, 줄리앙에게 끌리게 되는데... 그녀에 대해 스탕달은 소설 한 권도 안 읽은 여자로 묘사하였다. 소설을 읽은 여자는 보봐리 같이 되고, 소설을 읽지 않은 정숙한 여자는 레날 부인으로 대표되었다. 소설이 더 타락했을 때 그것이 프루스트나 카프카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벤야민이 하나의 도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는 최초 단계가 전성기이며 그 다음에 타락, 마지막에 부흥기입니다.

이야기하는 자와 듣는 자 간에 소통, 즉 벤야민에 따르면 미메시스라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

능해 지면서 소설이 타락했는데 가장 타락한 것이 바로 보봐리의 소설같은 것입니다. 이야기 할 것이 없으면서 계속 끝까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 끝까지 가면 바로 프루스트나 카프카의 소설들과 같이 바로 부흥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왜 그가 소설을 중요시 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읽어내려 했는가를 이 시간에 하려합니다.

▲ 타락한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소설 속의 문제적 개인

게오르그 루카치가 말하기를 현대 소설의 대표적인 이론서가 벤야민, 아도르노가 영향을 받았던, 테오리데스 로망?에서 현대 속에 근대 소설은 타락한 방식에서 문제적 개인들의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봐리나 적과 흑의 줄리앙은 불륜이나 사랑의 도구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진실을 찾아가므로 이들을 문제적 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벤야민은 근대사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근대는 경험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파편화된 개인이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공동체가 존재했고, 개인이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이들을 정통적 개인이라고 한다면, 근대 도시, 근대인이 된다는 것은 경험이 상실되는 과정이고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파편화,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의 단자로써 고립되는 다시 말해 고독한 개인이 됩니다.

소설은 고독한 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어떤 화법을 지니고 있느냐면 고독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경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아담의 언어가 기호가 되면서 사라지지 않고 내려올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돈 키호테의 중요 모티브가 노인이 기사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생겼습니다.

여기서 기사소설이라는 것은 방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며 이야기 꺼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딧세우스 역시 방랑하며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 내용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기사소설도 이야기 할 것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양식입니다. 돈 키호테는 전설의 기사에 대한 것을 읽고 산초라는 시종을 데리고 세상을 다니며 실패하는 이야기 입니다.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전의 기사들은 이야기들을 발견했지만, 돈 키호테는 세상에 나가봤지만 근대인인 그는 이야기 거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좌충우돌하면서 풍차로 뛰어들기도 하고, 시골처녀를 공주로 착각하기도 하고 별 짓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 키호테가 한 짓거리입니다.

◆2교시: 침대와 우울증, 그리고 기억작용

▲ 침대, 돈 키호테의 침대

좌충우돌하고 별 짓을 다하다가 그는 어디로 돌아오나요? 결국 그는 자신의 방에서 책만 읽다가 출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다 병에 걸립니다. 즉, 우울증에 걸립니다. 침대에 누워서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의사가 와서 죽을 때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은 소설과 달랐습니다. 보통 우울증은 풀 수 없는 딜레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로 들어갔죠. 더 넓은 공간으로 갔다가 돌아온 곳은 우울증이있는 침대입니다. 우울증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침대,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이야기 할 것이 없다는 회한에 젖을 수 밖에 없는 그 공간이 바로 침대입니다.

▲ 침대, 프루스트의 침대

그것을 마르셀 프루스트는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그는 5000에서 7000 페이지에 달하는 장편 잃어버린 시간에서 긴 소설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썼습니다. 그의 긴 소설의 첫 문장은 미세스 텔러웨이의 첫 문장이 유명해진 것처럼, 유명하죠. 미세스 텔러웨이의 첫 문장에서 미세스 텔러웨이는 오늘 스스로 꽃을 사겠다고 말했어요. 또 카프카의 변신의 첫 문장, 게오르크 잠자는 어느날 뒤숭숭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딱딱한 갑충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기 시작했다. 잠자리, 일찍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 끝날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줄여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첫 줄에 대해 이야기 하죠. 소설이란 것은 태생이 경험이란 것이 불가능한 근대에서 태어난 것이며, 파편화된 고독한 개인의 타락한 이야기 형식이다. 근본적으로 딜레마를 껴안고 있어요.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이야기를 해야 하죠. 소설이라는 장르를 사회학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마담 보바리의 연애이야기 판타지에 가까운 화려한 소사이어티의 이야기들, 이런 소설들을 한마디로 보면 이야기 할 것이 없는데도 해야 할 때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이죠. 벤야민은 가짜 이야기들이 범람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보바리는 읽어서 미치고 레날 부인은 안 읽어서 미쳤지요. 스탕달이 적과 흑에서 레날 부인이 쉽게 줄리앙에게 끌려들어갔을까 하는 것은 소설을 읽지 않았던 탓에 허무하게 끌려들어갔다고 말했죠. 당시의 풍속소설들은 타락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소설은 이야기 할 것이 없어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와 대치하는 작가들이 태어납니다.

▲ 기억, 이야기를 찾아서

그들이 바로 프루스트나 카프카입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찾을 것인가? 과거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면서도 너의 이야기 이기도한 집단적 소통성을 지닌 것입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듣고 하는... 물론 그 안에서 내용만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는 지난시간에 말했습니다. 소설이 심리화된 이유가 작가들이 이야기를 찾기 위해 자기 내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밖을 향해서 이야기 하지 않고 안을 향해서 이야기 하므로 바로 고독한 담론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죠. 침대에서 바로 자기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고, 또 거기에도 이야기가 없을 때 내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야기가 없을 때 끊임없이 밑으로 이야기를 찾아서 바닥으로 갔을 때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기억작용은 무엇을 기억합니다. 리플렉션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이 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돌아서 보이는 것이죠. 기억이란 행위 속에는 나의 내면을 통과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선 나의 내면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근대적이라면, 과거의 공간에는 나도 속해있고 그도 속해있는 공간에서 이야기 하지 내 내면에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즉 고독한 개인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동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억입니다. 다 성장한 주인공이 마르셀인데 주인공이 유년시절을 기억하는 나라는 화자와 유년의 주인공인 마르셀이란 아이를 마르셀 프루스트란 작가가 이야기 하고 있는 형식이 기본적 담화형식입니다. 묘한 겹침이 재미있는 현상이죠. 프루스트도 근대소설의 하나의 보편적 형식인 기억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전혀 다르게 등장합니다. 바로 무의지적 기억입니다.

▲ 프루스트에 대한 배경

그는 도입부를 삼십페이지 가량 썼어요.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그의 상황은 유명한 외과의사의 아들로 아쉬움 없이 살았고 유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마보이로 컸어요. 혼자 자려면 엄마가 뽀뽀를 해 주어야만 잠을 잤죠.

그러나 엄마는 항상 뽀뽀를 안 하려 해요. 유약해 질까봐. 천식이 있어서 쿨룩거리며, 말할 수 없이 예민해서 우리가 경탄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병적이며, 변태적이다. 당대 돈은 많고, 유산은 엄청 많은 일종의 귀족적 백수인 스넵들이 하는 일, 당대의 고급 살롱이나 고급 매춘가를 다니면서 청춘을 다 보냈어요. 어느 날 사십이 넘어 이전의 사람들과 작별하고 침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3교시: 소설과 다양한 기억형태

▲ 프루스트의 반수면 상태

저택에 한 방에 코르크를 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창에는 커튼을 쳐서 햇빛도 안들어 오게 하죠. 그리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죠. 외출도 않고 침대 속에만 있으면서 두 사람과 살죠. 프랑소와라는 하녀인데, 필요할 때 침대 위에 매단 줄을 당기면 프랑소와가 오고 뭐 물 가져 와라 이렇게 하죠.

프루스트가 노트를 쓰고 나면 프랑소와가 다 붙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프루스트의 첫 장면은 잠드는 장면이죠. 잠이 든다. 그런데 잠이 안와요. 나는 잠이 들려고 촛불을 켜놓고 점점 잠에 빠진다. 그리고는 다시 깨어난다. 또 책을 읽는다. 또 잠이 든다. 다시 촛불을 꺼야지 하면서 깨어난다. 즉,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문지방 영역, 반수면 상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 일종의 불면증의 특별한 상태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Combroy라는 동네에 어릴 적에 그는 살았는데, 유년시절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데 기억은 단편으로만 되살아납니다. 할머니가 살았던 방, 대고모가 마시던 차의 냄새 등등. 프루스트가 목적 하는 것은 Combroy 전체가 토달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안되죠. 그때 그의 어깨가 왼쪽으로 가서 침대에 닿으면, 새까맣게 잊었던 여자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내 몸이 어디에 닿는냐에 따라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요. 기억이라는 것은 신체를 통해 올라오는 것이지, 머리를 통해서가 즉, 내면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전체를 기억하려는 것은 소위 내면적 기억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고 신체와 가능한 기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 무의지적 기억-도입부의 끝, 소설의 시작

그는 천식이 심해서 우울증에 빠져있었는데, 국화차와 마들렌이란 빵 한 조각을 주는데 그는 안먹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차 한잔을 마시고, 마들렌 한 조각을 떠 넣었을 때 구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화학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로틱한 표현으로 녹아내리는 케익과 침과 섞여 만들어내는 이상한 화학작용들이 입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기화로 갑자기 Combroy가 떠올랐다. 하고는 이제 소설이 시작 되요.

바로 무의지적 기억에 의해서 구강 안에서 벌어지는 물질들 간의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내 신체와 신체가 만나 만들어내는 분명히 일어난 융합작용에 의해서 기억이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전체가 떠오른다. 우리는 전체와 부분으로도 프루스트를 읽어낼 수 있다. 신화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근대에서 불가능한 경험을 가장 근대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그는 재환?시키려 하는, 바로 벤야민이 보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죠. 가장 타락한 즉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로 그것을 복구시키려 하는 것이 벤야민의 논리입니다. 프

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은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 기억, 그래서 전체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작은 디테일까지 기억한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시간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신화적인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나간 것이 현실이 here & now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롤랑 바르트의 사진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프루스트가 기억하려는 것은 과거가 현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찾는다는 강도의 의미가 여기있습니다.

이미 죽은 현실이라는 기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과거가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목적으로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기입니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이 모두 되살아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는 무의지적 기억을 통해서, 소위 과거라는 것이 내가 서 있는 시간으로 되는 것이 바로 프루스트가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의지적 기억이 바로 그 이전 소설의 스타일로써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프루스트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근대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야기 할 것이 없이 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을지 모르지만 근대인의 삶은 다 비슷합니다. 바로 개인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딴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공통 분모화 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이죠. 그런데 너와 내가 완전히 다른 타자다라고 할 수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욕망의 관계나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실패한 방법이나 아니면 욕망을 배웠던 방법이나 다 비슷해요. 따라서 오늘날의 소설은 이야기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잡설만 나오고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프루스트가 발견한 기억행위, 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다.

프루스트도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 당시에 돈 많은 백수들이 했던 짓거리들을 프루스트도 다 해보았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기억의 대상과 기억의 행위는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억이 대상에 묶여있었다면, 그가 발견한 것은 대상이 기억자체는 이야기 할 것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꼬리를 물고 기억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루스트의 문장은 만연체로 끝날 수 없는 만연체로 글이 겹쳐지게 되어 우리가 읽기 힘듭니다.

문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즉 벤야민이 이야기 했던 듣기의 능력을 일깨우는 음악성, 그것이 바로 침과 케익과 국화차로 인해 융합작용이 일어난 것처럼 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 재조합해야 할지 읽어내야 하는지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프루스트가 발견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대상에 종속된 것이 아니구나 자체 운동을 갖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 살아온 일은 하잘 것 없지만 그 하잘 것 없는 것에 대한 기억행위는 풍부하기 짝이 없다. 그것이 바로 프루스트가 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